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이윤성 위원장입니다.

우리나라 100만 전력기술인의 구심체인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2차 정기총회에서 격려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작년 한해를 결산하고 올해의 계획을 확정하는 중요한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을 계기로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한 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전국의 전력기술인 여러분!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호가하고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화석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 선진 각국이 앞다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공해가 적은 전기를 생산하는 데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는 산업의 필수 기본재이자, 일상생활의 기반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전기가 없으면 공장을 돌릴 수 없고, 냉·난방, 냉장·냉동은 물론 지식보화 시대에 필수적인 IT산업도 존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세울만한 에너지 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게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모든 산업의 기본재인 전기를 제공하는 전력산업의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전과 성장은 산업 각 분야에서 성실히 근무하시는 100만 전력기술인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

激勵
愛
辛



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전기는 평소에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어주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생명을 앗아가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저는 전력기술인 여러분이 축구로 말하자면 수비수의 역할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축구에서 수비수가 경기 내내 잘 막았다 치더라도 단 1번의 실수로 골을 잃게 된다면 팀이 지게 되듯, 전기설비와 이를 다루는 전력기술인 여러분 역시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합니다.

금지과 자부심을 갖으십시오!

지금 이 시대,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는 바로 국력이며 이러한 전기를 다루는 여러분은 국가의 인재입니다. 반면, 그만큼 여러분의 어깨에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시고,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욱 기술을 갈고 닦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진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여러분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인 장치 및 제도를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총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이희평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모범적인 전력기술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의 화목과 사업의 번창과 그리고 직장에서의 성공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2월 28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이윤성**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이윤성 위원장님께서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격려사를 해 주시기로 되어 있었으나, 국정관련 회의로 인해 직접 참석을 못 하시고 지면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